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고관절

논문제목 **28mm 골두를 이용한 2세대 금속-금속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은 유용한 선택인가? - 12~18년 추시 결과 -**

영문제목 **Is second generation metal-on-metal primary total hip arthroplasty with a 28mm head a worthy option? - A 12-to 18-year follow-up study -**

발표자 **황규태** 책임저자 김영호

저자 황규태, 김영호, 김이석, 이준환, 최일용

기관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서론 : 최근 2세대 금속-금속 관절면을 이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금속 마모 입자 및 금속 이온에 의한 조기 골융해 및 가성 종양(pseudotumor)이 보고되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28mm 골두를 이용한 2세대 금속-금속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장기 추시 결과 및 생존율,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유용성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최근 2세대 금속-금속 관절면을 이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금속 마모 입자 및 금속 이온에 의한 조기 골융해 및 가성 종양(pseudotumor)이 보고되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28mm 골두를 이용한 2세대 금속-금속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장기 추시 결과 및 생존율,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유용성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결과 : 최종 추시시 Harris 고관절 점수는 평균 50.5점에서 91.9점으로 향상되었다. 4예에서 대퇴부 통증이 관찰되었으나 모두 1년 내에 소실되었다. 서혜부 통증은 7예에서 관찰되었고 6예는 비구컵 주위 골융해나 비구컵 해리와 관련되어 있었으나, 1예는 술 후 12년째 단순 방사선상 변화없이 서혜부의 경미한 통증 및 종괴를 호소하였으며 CT및 초음파 검사상 가성 종양 진단 후 환자가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를 원치 않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중이다. 대퇴 스템은 12예에서 Gruen 영역 1과 7에 국소적인 골융해가 관찰되었으나 해리없이 안정 고정을 얻었다. 수술 및 환자 관련 요인은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비구컵 주위 골융해나 비구컵 해리가 있었던 6예 중, 비구컵 해리 및 골융해가 있었던 2예와 조기 비구컵 해리가 있었던 1예에서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행하였다. 또한 비구컵 주위 골융해가 발생하였고 비구 골절이 동반된 1예에서는 골소파술 후 골시멘트 충진을 시행하였다. 나머지 비구부 골융해가 발생하였던 2예는 증상이 경미하여 관찰 중이다. 대퇴 스템 주위 골절이 발생하였던 2예에서 대퇴 스템 재치환술을 시행하였다. 비구컵 재치환술 종점에 따른 생존율은 18년에 97.8%이었으며 비구컵 주위 골융해의 종점에 따른 생존율은 18년에 96.7%이었다.

결론 : 작은 직경의 금속-금속 관절면을 이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은 12년~18년 추시 결과 양호한 생존율과 낮은 골융해의 빈도를 나타내었다. 따라서 작은 직경(28mm)의 금속-금속 관절면은 선택할만한 우수한 관절면의 하나로 생각된다. 그러나 가성 종양 등의 합병증에 대한 추가적인 추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acknowledgment :

금속-금속,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, 장기 추시